

임실고추 맞춤형 연구과제 추진

임실군-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바이오차 활용 기술 개발 등 연구

임실군이 명품 임실고추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지 고추 맞춤형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지 고추 자동 관수·관비 및 바이오차 활용 기술개발' 연구를 2026년까지 3년간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노지 고추 자동 관수·관비를 통한 관수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양수분의 최적 환경을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유기물)와 차콜(숯)의 합성어로 탄소감축이라 불리는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토양에 투입 시 유기물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고추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고추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고추육묘지원사업 등에 9억2천여 만원을 편성하여 고추 안정생산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고추 가식 적기에 맞추어 고추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다수확 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 육묘 생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정 온도 및 수분 관리 등 생육 관리와 병해충 방제에도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고추 파종은 정식예정일을 역산하여 실시하고 파종 후 25~30일에 본잎이 1~2매가 전개되었을 때 가식을 한다. 가식 시기가 이르면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고 늦어질 경우 활착이 지연되어 생육이 불균형해지고 병해충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반드시 적기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군은 건설한 고추 육묘를 통한 품질 높은 고추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 위치한 종자파종실을 이용하여 임실군 고추생산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고추 공동파종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파종량은 약 390만립이며, 파종된 고추는 건설한 육묘를 위해 관내 고추 공동육묘 농가에 배정하여 세심한 육묘 관리를 거친 후 고추 재배 농가에 공급된다.

아울러 내병계 품종인 칼탄조은건 등 40품종을 비교 재배하는 고추품종 비교시험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수확량, 품질, 병 저항성 등의 지표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품종을 선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심민군수는 "우리 지역의 전라작목인 고추품목에 대한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군이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지 고추 맞춤형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남원시, 제 15기 명품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6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15기 명품농업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

명품농업대학은 2010년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총 1,76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입학생은 총 105명으로 3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농업치유반은 농업농촌을 활용하여 신체, 정서, 심리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현장 및 이론 교육교육으로 운영되며, 딸기스마트팜반은 딸기재배(기초) 관리 기술 및 스마트팜 활용 환경제어 현장 기술을 교육하고, 청년농부반은 농업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활동&농촌정착 마인드교육 위주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6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15기 명품농업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

로 진행된다.

센터 고인배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 실습 및 선진지 견학 비율을 높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업 CEO 육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로 포트홀 보수 총력 대응

순창군, 이달말까지 11개 읍·면 총 133개소 긴급 보수·정비

최영일 순창군수가 최근 관내 전체 도로망에 대해 포트홀 보수를 지시하고 나서 순창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6일 11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포트홀 등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수·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트홀은 잦은 눈비와 해빙기로 인해 생기기, 일명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려 많은 차량 파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 유지보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실작업과 비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군은 겨울철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여 발생한 포트홀 등을 긴급히 보수·정비하기 위해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총 133개소의 포트홀을 발견했다.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은 도로 관리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스콘 질사 후 덧씌우기를 통해 도로의 파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울러, 군은 도로 파손 보수를 위해 건설과 운전 및 도로관리원 11명을 2팀으로 구성해 일 평균 30여건의 포트홀을 보수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모든 포트홀을 정비하여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동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포트홀 이외에도 향후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긴급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엇보다 소중한 군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순창군은 가용할 수 있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창군, '보통교부세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순창군이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순창군 보통교부세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가 진행했으며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반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 교부세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순창군 보통교부세 재정현황 및 확보 여건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으로, 국고 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순창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핵심 재원이기도 하다. 이에 군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산정 수요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교육에 필두로 전 부서가 공조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순창군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임실군이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 앞장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도박 및 유해주점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상 제한업종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만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를 작성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순창군은 지난해 첫 도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점검대상 업체명,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업장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관리하여 위반을 저감하고 불시 점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사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사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

남원시는 6일, 아동학대 업무협조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제4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2023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분석 결과 △학대피해아동 사례공유 및 대응 방안 △2024년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방안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경찰서 등 8개 기관과 총 39명으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 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및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역 내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